통일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29호 【루계 제2759호】

주체112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음력 5월 2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강화발전행로에 새겨진 또 하나의 의의깊은 대사변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 단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강화의 일환으로 7월 12일 미싸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전례없이 가증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형세가 랭전시대를 초월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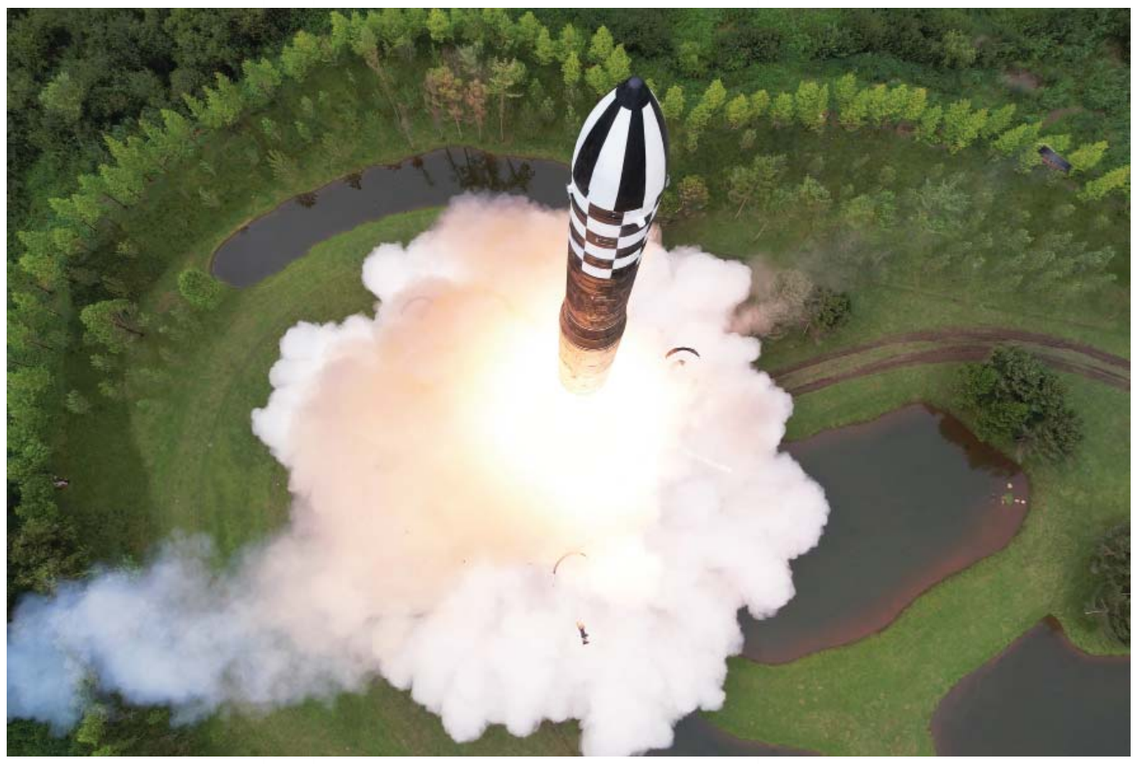
(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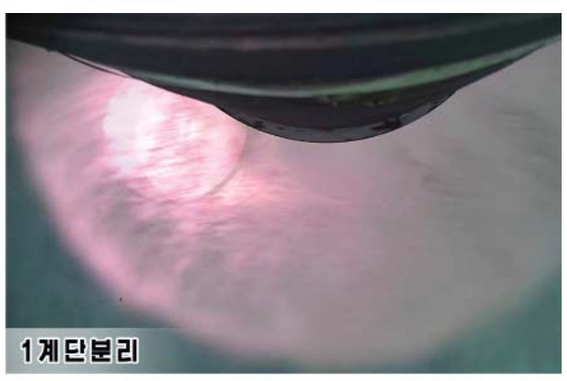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강화발전행로에 새겨진 또 하나의 의의깊은 대사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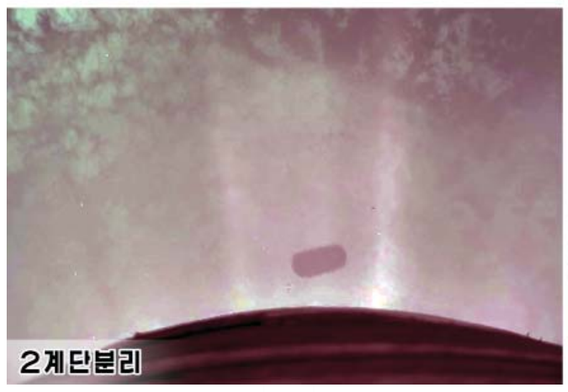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 단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핵위기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판단과 중대결심에 따라 진행되였다.

지난 4월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워싱톤선언》을 조작해낸 미국은 미일남조선 《3자핵동맹》의 모체로 될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빠》회의를 통하여 공공연히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핵무기사용을 모의하려고 획책하고있으며 미전략자산의 《가시성》중대의 미명하에 핵추진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시로 출몰시키면서 지역정세를 사상초유의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극히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미핵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성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련쇄핵위기를 몰아올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적인 대결기도가 더이상 허용할수 없는 림계점에 근접한 현정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을 물리적힘으로 억제하고 자기스스로를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자위력강화, 자위적핵전쟁억제력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공화국전략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목적을 둔 필수적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없는 압도적대응의지와 물리적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군사적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경고로도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무기체계의 기술적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재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앙지휘감시소에 오르시여 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김정식대장이 시험발사임무를 맡은 미싸일총국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온 행성을 뒤흔들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만장약된 전략무기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폭음이 터져오르고 거대한 동체가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효용성의 증시로 되며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바 없는 검증으로 된다.

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무기체계는 각이한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발적인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굳건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공화국의 위력적실상을 힘있게 과시한 오늘의 이 사변적인 성과는 공화국전략무력발전에서 또 한번의 중요한 진일보로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조선반도안전환경이 각일각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불안정한 현정세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핵전쟁억제력강화로선관철에 더욱 강도높이 매진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것이라고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도전들이 가중될수록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행로에는 보다 놀라운 사변들만이 끊임없이 새겨지게 된다는것이 공인된 법칙이라고,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핵전략무력강화를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국방과학부문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뜻깊은 전승절 70돐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의 대성공으로써 영원한 승리의 력사를 시대와 미래앞에 기약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전체 국방과학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엄숙한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 살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정히 떠받드시며 인민의 권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분,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당과 국가가 해야 할 일, 나아갈 진로를 찾으시는분, 행복에 겨워하는 인민의 웃음소리에서 더없는 보람을 느끼시며 위민헌신의 강행군길을 더욱 줄기차게 이어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겨울에 억수로 쏟아지는 찬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외투자락이 흠뻑 젖도록 이채어경을 이룬 포구며 사업소의 곳곳을 다 돌아보시였다.

물고기랭동저장실에까지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물고기산을 바라보시며 이윽토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찬비에 젖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외투에는 하얗게 성에가 불리였지만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게 된것이 못내 기쁘시여 보시오, 물고기가 아니라 금괴들을 쌓아놓은것 같지 않소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기쁨이 넘쳐흘렀지만 그이의 옷자락에 맺힌 하얀 얼음발들을 보는 일군들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사진을 받아보시고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어느해인가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이 공장에 또다시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천t의 감자가루를 생산하여 산같이 쌓아놓은 풍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지난해에 감자저장고에 쌓아놓았던 감자들이 오늘은 감자가루산이 되였다고, 훌륭한 풍경이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사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것이고 북부고산지대에서 처음 보는 감자작황과 감자가루산도 그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이날 일군들이 감자가루를 보며 저저마다 밀가루같기도 하고 우유가루같기도 하다고 할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가루때문에 하도 마음을 써서인지 자신에게는 뼈가루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는분, 인민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이시기에 인민들이 리용할 삭도도 먼저 타보시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가늠해보시였고 나무방틀로 림시교각을 세운 위험천만한 다리를 넘어 검덕지구 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신것 아닌가.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도 할수 있는 방역전쟁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하여 주신 령도문건만 하여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에 달한다.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중요당회의들을 련일 소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백, 천, 만가지에 이르는 대책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였고 불철주야 방역전장들을 찾으시면서 명철한 방략들을 가르쳐주시고도 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가정에서 쓰셔야 할 상비약품까지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에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불같은 인민사랑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는가.

참으로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으로 이어져왔다.

하늘도 감복할 그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송화거리, 화성거리를 비롯하여 수도의 곳곳에 사회주의 문명을 자랑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들이 일떠서고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곳곳마다에 행복의 별천지,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으며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의 문화휴식터,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도처에 펼쳐졌다.

이뿐이 아니다. 새세대들이 새 교복을 입고 우리가 만든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을 쓰면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혜택속에 앞날의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자라고있고 황금산, 황금해, 황금벌의 새 력사가 창조되고있다.

이처럼 인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면서도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한 대상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신 자리에서 최근에 평양시안에 여러 창조물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비해볼 때 작은 모래알이라고, 이런 작은 한알한알의 모래알을 쌓아서 큰산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한없는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고 공화국인민만이 누리는 더없는 행운과 크나큰 행복의 무게가 실리여있다.

자신께서는 인민의 믿음이면 된다고, 자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믿음만은 꼭 지킬것이라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하기에 이 땅의 천만자식들은 가슴속에 차넘치는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을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시련과 난관이 닥쳐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진정,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난해에도 중중첩첩 막아서는 고난을 웃으며 헤쳐올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제일 힘겨운 로고란 로고는 다 바치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후대들의 행복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원수님, 그래서 새해를 맞으며 원수님을 우러러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드리려고 마음다졌는데 오히려 그이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니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새 경륜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머지않아 천하제일락원, 천하제일강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를것이다.

림 명 호

위대한 공민

공민!

사람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범상하게 불러오는 말이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공민이라는 이 말은 절세위인의 불멸의 위인상과 함께 깊은 의미속에 새겨져있다.

해방후 어느날 저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한 일군의 집에서 있은 일이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던 그 일군은 느닷없이 주머니에서 수여받은 공민증을 꺼내들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아버지도 공민증을 받았는가고 물었다.

《아무렴, 김일성장군님께서도 공민증을 받으셨다.》

《예? 장군님께서도…》

가족들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은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자신에게는 왜 공민증을 주지 않는가고 하시면서 공민증의 주의사항에는 공민은 누구나 다 공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이것은 나라가 규제한 법적요구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 자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나라에 복종하는 공민이기때문에 국가의 법적의무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나라에 복종하는 공민!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그대로 공민의 법적의무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끌없이 헌신하시려는 인민적령도자의 고결한 풍모가 비껴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민증을 한시도 자신에게서 떼여놓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공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시였다.

새 조국건설로 힘차게 약동하는 공화국땅에 기쁨과 행복이 차넘치던 어느해 8월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어느한 약수터를 찾으시였다.

당시 이곳 농민들은 8.15를 맞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 약수터앞에 솔문을 만들어 세우고 질서를 잡기 위해 그앞에서 경비를 서며 약수터를 관리하고있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변경치를 바라보시며 경비를 서고있는 농민에게 다가가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 그 농민은 《저… 미안하지만 증명서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조용히 말씀드리는것이였다.

뒤따르던 일군들이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증명서말입니까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증명서를 보여주시였다.

그이의 증명서를 받아 펼쳐든 경비원은 너무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렇게도 겸허하게 증명서를 보여주신분이 다름아닌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지지리 천대받던 자기들에게 꿈속에서도 바라던 땅을 분여해주신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신가.

경비원은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그이의 시간을 지체하고 버릇없이 앞을 막아나선것이 너무도 민망스럽고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하다가 허리를 굽혀 큰절을 드리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얼른 그의 두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며 경비를 잘 서고있다고, 그렇게 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토록 고마우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례하게 증명서를 요구한 자기를 탓할 대신 오히려 경비를 잘 선다고 치하해주시니 그는 더욱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땅을 다루어 터실터실한 그의 마디진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제는 통과해도 되겠지요, 약수터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라고 하시였다.

《장군님, 어서 들어가십시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경비원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번쩍이였다.

이것이 어찌 이곳 약수터에만 새겨진 이야기라고 하겠는가.

수십년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날이였다.

아침일찌기 선거장으로 떠나시려고 마당에 나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공민증이 정확히 있는지 확인해보시였다.

온 나라 인민이 국가수반으로 높이 받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거장에 꼭 공민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겠는가고 생각한 한 일군이 그이께 자기의 생각을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민증은 공화국공민의 증표이므로 누구나 각급 인민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공민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자신께서도 공화국공민이라고, 법도 우리가 만든것인데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민증에서 오손된 부분이 없는가 다시한번 살펴보신 후 소중히 품안에 넣으시였다.

선거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공민증을 보이신 다음 선거표를 받아 투표함에 넣으시였다.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공민의 모습으로 제정된 질서를 지키시며 인민들과 꼭같이 겸허하게 생활하시였다.

정녕 자신을 공화국의 수령이기 전에 나라의 평범한 공민으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위대한 한생의 갈피갈피를 열화같은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존중으로 수놓으신것이였다.

리 경 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에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29돐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총련중앙일군들의 모임이 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과 중앙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허종만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리광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성철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회장을 비롯한 조청과 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조선청년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이날 총련 도쿄도본부를 비롯한 총련의 현본부와 지부, 단체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학교들에서도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인,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승리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

절대적기준

평양대극장건설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선 어느날이였다.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무대부분 지붕이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때 건설을 책임지고있던 일군이 한 로동자가 보내온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리였다.

그 편지에는 무대부분에 대한 그의 의견이 적혀있었다.

평범한 로동자의 의견이 담긴 편지를 다 읽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옳소, 인민들이 나쁘다면 다 나쁜것이고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요, 이 극장이야 인민들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좋다는대로 지어야지라고 하시면서 4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기러기 1마리가 처진것같으니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 극복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의 소박한 의견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는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짓는 이 대극장은 진정 인민들을 위한 예술의 전당이니만큼 인민들의 요구대로, 인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잘 지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기준, 그것은 바로 인민의 요구이고 리익이였다.

끝없이 이어가신 밤길

주체87(1998)년 11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성군을 찾으시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던 무렵 온포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전경을 둘러보시고 발전소의 내부를 돌아보시였다.

사실 크지 않은 발전소였다.

발전기실안에서 설비들의 가동상태를 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밖으로 나오시였을 때는 한창 어둠이 짙어가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밝은 불빛이 흐르는 상온포마을쪽을 바라보시더니 그쪽으로 향하시였다.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생산한 전기가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차례지는가를 보고싶으시였다. 어느한 집에 들리시여 집구경을 하러 왔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주인에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무슨 덕을 보는가고 물으시였다.

전기난방을 하였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손수 방바닥을 짚어보며 온도까지 헤아려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발전소를 건설한 덕을 보고있는데 대하여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였다. 얼마후 칠흑같은 어둠속을 뚫고 야전차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몇해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문화정서생활기지에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깊이 관심하시며 일군들에게 자연박물관의 특성이 살아나게 인공풀과 담쟁이덩굴을 잘 배합하여 조형예술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마크의 위치도 바로잡아주시고 출입문의 형식도 다시 정해주시였으며 건물내부를 돌아보시면서는 미흡한 문제점들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만하면 흠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여난 안목과 끝없는 요구성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금이 들더라도 자연박물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꾸릴데 대하여, 해설문도 잘 써볼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이께 한 일군은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힘들어도 이런것을 하나씩 해놓아 인민들이 마음껏 즐기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손색없이 훌륭히 완공된 자연박물관을 찾는 인민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안광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박물관의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문화정서생활공간이 마련되였다고, 자연박물관은 국보이라고, 우리 나라에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창조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본사기자

전승 70돐

위대한 전승세대는 노래와 함께 싸워이겼다

한편의 명가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천만대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

그래서 어떤 력사가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전쟁은 어찌 보면 문학예술의 전성기, 문예부흥기를 동반한다고도 하였다.

전시가요들이 오늘까지도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것도 그래서일것이다.

력사의 페지에는 가지가지의 전쟁들이 기록되여있으나 1950년대의 조선전쟁처럼 가장 첨예한 사상과 리념의 대결, 가장 극적인 무장장비의 대결, 태여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주권국가를 압살하려고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련합하여 떼를 지어 달려든 치렬한 격전의 례는 찾아볼수 없다.

공화국은 이 준엄한 전쟁에서 위대하고 불멸할 승리를 이룩하였다.

자주와 존엄, 명예를 지켜 조국을 수호한 전승세대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사존망의 판가리싸움에서 울렸던 전시가요들을 통해 보고저 한다.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가요 《조국보위의 노래》(작사 조령출, 작곡 리면상)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제일먼저 불리웠고 오늘도 전승세대의 후대들이 애창하고있는 전시가요이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고귀하고 신성한 부름인 인민의 조국은 어떻게 태여났던가.

일제식민지압제의 총칼과 민족말살의 포박을 불살라버린 조국해방에 이어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새 력사, 새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들이 련이어 울리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으로 되게 하여준 토지개혁법령, 산업건국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게 한 중요산업국유화법령, 울밑에 선 봉선화를 구슬프게 노래하던 이 나라의 녀성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안겨주고 새 생활창조의 밝은 길을 열어준 남녀평등권법령…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된 인민이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선출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미국과 리승만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의 이 행복한 생활과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고 1950년 6월 25일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활화산이 타올랐다.

…
우리의 부모형제 우리가 사는 곳
제국주의침략에 한치인들 밟히랴
…

공장과 농촌, 교정, 가는 곳마다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울려퍼진 《조국보위의 노래》는 공화국인민이 터뜨리는 원쑤격멸의 우렁찬 함성이였고 진정한 삶의 품,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인민의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리라는 수호자들의 맹약이였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동원할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을 받들고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기상으로 침략자들에게 된매를 안기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해갔다.

적들을 기절초풍하게 한 강력한 타격이였고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눈부신 진군속도였다.

이를 반영한 노래가 가요 《진군 또 진군》(작사 집체, 작곡 황학근)이다.

…
내 조국 침범한 놈 용서할소냐
사랑하는 이 강토를 짓밟은 원쑤
복수의 총창 높이 들고 무찌르며 나아간다
…

영용한 인민군대는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1950년 7월 5일에는 오산에서 맞다든 미군의 《스미스특공대》를 몇시간만에 완전소멸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상승사단》이라고 자랑하던 미제24사단을 대전에서 완전소멸하는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3일만에 서울에서 쫓겨나고 8월에는 포항과 대구, 마산을 련결하는 협소한 지역에 3면으로 포위되게 되였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미국의 언론들까지도 《현실은 강대한 미국의 무력이 어떻게 희망없는 가렬처절한 전쟁을 진행하고있으며 가장 작은 국가인 북조선군대가 어떻게 미국군대를 격파하며 바다로 몰아넣고있는가를 실증하고 있다.》라고 개탄하였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침략자들의 운명은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가요 《비행기사냥군조의 노래》(작사 리선용, 작곡 윤승진), 《해안포병의 노래》(작사 석팔봉, 작곡 박한규)가 전하여준다.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전인민적항전이 벌어진 이 땅에서는 후방도 전선이였다.

전선탄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부녀자들, 로인들은 전선에 나간 청장년들이 섰던 일터와 초소를 원쑤격멸의 전호로 여기고 조국의 후방을 믿음직하게 지키였다.

《북조선에서는 쓸어도 남을것이 하나도 없게》 할것이라고, 공화국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미제는 비행기와 함포로 공화국의 전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폭격, 포격을 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히로시마를 취재했던 오스트리아의 작가이며 기자인 월프레드 버체르는 조선에 와보고는 《히로시마는 파괴된 한개의 도시에 불과하지만 조선은 말그대로 온 나라가 통채로 폐허로 되였다. 전쟁이 일어날 때 평양시의 인구는 37만명이였다. 그런 평양에 남은것이란 두개 건물뿐이였다.》라고 썼다.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들려는 원쑤들의 폭격, 포격이 얼마나 극심했는가에 대해 한 시인은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갈이 타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남북삼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고 토로하였다.

아, 강철의 령장!

조선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화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나라가 원자탄까지 보유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승할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인류는 도대체 작은 나라인 조선이 어떻게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는 미국과 맞서는가, 맞선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인민은 미제와 맞서기만 한것이 아니라 때려부셨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무엇을 믿고, 무슨 힘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법동농민의 대화를 다시 펼쳐보고저 한다.

…

《그래 로인님은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갑니까?》

《북으로 가지요. …군대 동무들과 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지요!》

《그래 이 란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갑니까?》

《왜 찾아가다니요?! … 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소.》

《로인님. 그런데 로인님의 생각에는 우리 인민군대가 전쟁에서 이길것같습니까?》

《이기지요. 이기고말구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이기지요!》

…

이것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이였고 전쟁의 운명에 대한 확신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전쟁을 도발한 첫날에 벌써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다.

6월 25일 내각비상회의에서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즉시적인 반공격전으로 침략자들을 소탕하여야 한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놀라움과 경탄, 환희로 회의장을 들끓게 하였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군림한 미제를 무분별하게 날뛰는 한갓 승냥이로 보시고 몽둥이찜질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시려는 무비의 배짱과 담력, 원쑤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하며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반공격전으로 침략자들을 소멸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의지는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를 담은 노래가 바로 《우리의 최고사령관》(작사 김북원, 작곡 김원균)이다.

오늘도 부대는 원쑤를 부시고
들과 강물 산발을 넘는다
나가는 진두에 언제나 그 모습
용맹을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의 부름에 원쑤를 부시고
그이를 모시고 승리를 노래하리
…

김일성장군, 그이는 위대한 조국이시라는것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불변의 신조이기에 조국의 한치땅을 지켜 목숨을 바치였고 쓰러지면서도 심장의 더운 선혈로 이 땅을 적시였다.

이 땅이 왜 그리도 붉은가를, 무엇때문에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승리를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웠는가를 노래 《결전의 길로》(작사 석광희, 작곡 김옥성)가 보여주고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친 영웅전사들이 바란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값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것이였다.

하기에 군대와 인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조국을 사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39(1950)년 12월의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이런 교시를 주시였다.

전쟁이란 신념과 의지의 대결이고 동시에 정열의 대결이기도 하다. 우리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아무리 준엄한 시련앞에서도 웃으며 전쟁을 해야 한다. …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있는 인민은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헤치며 반드시 승리를 이룩한다.

적아간의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조선의 고지마다에서는 언제나 인민군군인들이 부르는 조국과 고향에 대한 노래, 승리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살기 좋은 곳이였네
수령님이 주신 땅에 봄이 오면 씨뿌리고
단풍드는 가을이면 오곡백과 거두었네
…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작사 집체, 작곡 리면상)은 원쑤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고지들과 하늘과 바다에서
사랑하는 조국강토 용감히 사수하여
원쑤들을 쳐부시고 우리는 승리했네
빛나는 승리의 기 펄펄펄 날리며
영명하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래일의 찬란한 건설위해 나가자
래일의 찬란한 건설위해 나가자
…

정녕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 열정과 랑만으로 태여난 전시가요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께 드리는 송가였고 승리의 찬가이다.

* *

전승의 축포성을 터친 그날로부터 어느덧 세월은 70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그러나 전화의 나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에 울리던 전시가요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위대한 전승세대의 위훈과 공적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세기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만약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제2의 6.25를 강요하려 한다면 전승세대의 후손들이 《조국보위의 노래》를 부르며 용약 전선으로 나아갈것이며 《결전의 길로》를 높이 부르며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 새 세기의 전승세대,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기개와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줄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수기

아버지의 초상

해마다 7월이 오면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군 한다.

한것은 아버지가 조국해방전쟁참전자여서만이 아니다. 조국을 보위하기 위해 인민군대에 입대한것도 1950년 7월이였고 미국놈들이 매설한 지뢰를 해제하다가 그만 한다리를 상한 날도 바로 1953년 7월이였기때문이다.

산야에 흙보다 파편이 더 많이 쌓이고 강물에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던 그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가정이 이 나라에 어디 있으랴만 나는 아빠라는 말을 번지기 시작한 때부터 지팽이를 짚고다니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어린 가슴에도 원쑤들에 대한 증오가 꽉 차있었다. 그리고 그 증오가 큰만큼 아버지에 대한 긍지 또한 높았다.

내가 소학교 2학년에 다닐 때의 일이다.

그날 우리 집에서 학습반을 하고있는데 한 아이가 《애들아, 우리모두 집에 가서 아버지들훈장 달고 오지 않을래?》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만 당시 아버지들을 자랑하고싶은 우리들의 승벽심은 이만저만 아니였다.

둥지에서 놓여난 새들마냥 밖으로 뛰쳐나갔던 아이들은 얼마후 숨을 할딱거리며 다시 모여들었다.

국기훈장, 자유독립훈장, 군공메달…

다들 앞가슴에 훈장과 메달이 번쩍거렸지만 나만은 그렇지 못하였다. 옷장이며 책상서랍을 모두 뒤졌으나 아버지한테는 교작해야 영예군인휘장밖에 없었던것이다. 그 휘장만 달랑 달고 아이들앞에 나서자니 창피스러웠다.

훈장을 달고 오자고 발기하였던 아이가 내 앞가슴에 달려있는 영예군인휘장을 보자 신기한듯 물었다.

《그건 무슨 훈장이가?》

내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다행히도 옆에 서있던 아이가 알려주는것이였다.

《넌 그것두 모르니? 이건 영예군인휘장이야.》

《영예군인휘장? 그럼 국기훈장보다 더 세니?》

《세지 않구. 인민군대장령 아저씨두 이 휘장을 보면 경례를 한단 말이야.》

많은 훈장과 메달을 달고있으면서도 아이들은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였다.

나는 움츠리고있던 두어깨를 쭉 폈다. 비로소 아버지의 영예군인휘장이 훈장이나 메달보다 더 값비싼것이라는것을 알았던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자랑에 여념없었다. 가령 내가 《우리 아버진 영예군인이야!》 하고 뻐기면 인민군대 군관, 과학자, 큰 기업소 기사장을 하는 아버지들을 둔 아이들도 입을 다물었다.

어느날 그 자부심을 허물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 아침, 전쟁시기 함께 싸웠던 전우를 찾아가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는데 정류소에 사람들이 많았다.

《아버지, 앞줄에 서자요!》

내가 당연한것처럼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뒤줄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이 저저마다 먼저 타라고 권하였지만 아버지는 끝내 줄을 서서 뻐스에 올랐다.

저녁무렵,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엄하게 일렀다.

《이녀석, 이 아비가 뭘 잘났다고 그러느냐. 엉?》

나는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그랬는데 이런 꾸중을 들을줄은 몰랐던것이다. 하지만 성난 아버지를 보자 가슴속에서 고패치던 감정이 목구멍으로 꼴깍 넘어가고말았다.

《다시 또 그러면 안된다. 알겠냐?》

나는 원체 잠꾸러기였지만 그날만은 인차 잠들지 못하고 궁싯거렸다.

다들 영예군인이라고 생각해주는데 아버지는 왜 싫다고 할가?

그것은 당시 9살밖에 안되던 내가 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숙제였다.

그후에도 아버지는 영예군인휘장을 달고 다니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식당이나 상점에 가서도 언제한번 영예군인이라고 특전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였다. 아버지가 앞가슴에 영예군인휘장을 달고 나섰던것이다.

《난 전국영예군인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됐다.》

과묵하고 좀처럼 웃을줄 모르던 아버지가 이날만은 환하게 웃었는데 그 모습은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달나마 성황리에 진행된 전국영예군인예술축전이 끝나고 돌아온 아버지는 몹시 흥분해서 격정을 터놓았다.

《글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변변치 못한 우리 영예군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실줄을 어찌 알았겠냐. 그분들을 뵈옵는 순간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영예군인이라고 우대만 받는 내자신이 얼마나 죄스럽던지.》

뜬눈으로 밤을 새운 아버지는 새날이 밝자 공장으로 나갔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밤늦게 퇴근하군 하였고 그나마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밥을 가지고 공장에 찾아갈 때마다 다른 영예군인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있는 아버지를 보군 하였다.

사실 나라에서는 영예군인들이 밥맛이나 날 정도로 일하도록 로동시간을 제한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영예군인으로 내세워주고 돌봐주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애면글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남들이 다 보는 앞가슴이 아니라 자신만이 볼수 있는 심장속에 영예군인휘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의 진정이 어린 가슴에도 눈물겹게 안겨왔다.

아버지를 추억할 때면 영예군인휘장과 함께 낡은 기타가 떠오른다.

아버지는 기타를 몹시 좋아하였다. 어머니와의 인연도 기타로 맺어졌다고 한다.

언제인가 어머니가 문득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아버진 부상당한 다리가 아프면 더 극성스레 기타를 탄단다.》

어머니말이 옳다는것을 며칠 지나 알게 되였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던 나는 웅글은 신음소리를 듣고 깨여났다.

눈을 비비고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상당한 다리에 찬물찜질을 해주고있었다. 어릴적부터 자주 보아오던 광경이였다.

《여보, 기타를 가져다주오.》

이윽고 조용히 기타소리가 울리더니 아버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대신 노래가 울려나왔다.

결국 아버지는 기타를 취미로 타지 않았다. 아픔을 덜기 위해서도 아니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의 여가시간에 기타를 타며 노래에 사랑과 증오를 담던 그날처럼 오늘도 기타를 타며 고마운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를 담았던것이다.

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지 않았다.

언제인가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저녁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었다.

누군가가 어느한 건설장에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날처럼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온 후에도 원래 일하던 평양영예군인원주필공장에 출창 나가있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시내를 돌아다니며 파수지를 모아 공장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자식의 안타까운 심정은 알려고도 않는 아버지가 섭섭하게 여겨졌었다.

나는 급히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건설장에 도착하니 휴식참인지 건설자들이 까맣게 모여앉았는데 그들앞에서 아버지는 전투담을 들려주고 있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몸이지만 후대들에게 조국보위정신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아버지를 보니 고깝던 마음이 봄날의 눈석이처럼 스르르 녹아내렸다.

《나도 이젠 늙어서 그런지 힘들구나. 그렇다고 영예군인대우나 받으면서 집에 편히 앉아만 있겠니? 이 심장이 뛸 때까지 나라에 보탬을 줘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한 이야기였다.

나는 머리가 희슥희슥한, 지팽이를 짚고 힘들게 걷고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뜨거운것을 삼켰다. 정말이지 그날의 아버지모습은 평생 잊을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지녔던 애국의 정신세계는 나의 뇌리속에, 심장속에 오늘도 소중하게 간직되여있다.

그렇다.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더없는 영광으로 안고 산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깨끗한 량심과 불같은 애국으로 빛내여온 자신들의 한생으로 후대들에게 말하고있다.

조국을 사랑하라! 조국을 빛내이라!

나는 전세대들의 이 당부를 가슴에 새겨안고 준엄한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변함없이 조국을 받들어온 아버지처럼, 전쟁의 재더미속에서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혁명선배들처럼 위대한 김정은조선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류 원 규

재부에 비낀 두 의미

또 하나의 사회주의번화가로 펼쳐진 화성거리에 어둠이 깃들자 별천지, 불꽃바다가 펼쳐진다.

하늘의 은하수가 통채로 쏟아져내린듯 휘황찬란한 화성거리의 보금자리에서 단란한 저녁시간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TV에서는 흥그러운 노래소리가 울려나온다.

…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폈소

…

문득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즐거움의 선률을 뚝 끊어버린다.

《엄마, 황금나무라는게 진짜 있나요?》

다섯살잡이 딸애의 새별같은 눈동자에는 물음표가 가득 실려있었다.

황금나무!

아직은 황금이라는 의미를 《황금덩이와 강낭떡》과 같은 동화세계에서나 알고있는 딸애의 엉뚱한 물음이 나로 하여금 무심히만 들어오고 불러보던 그 말을 다시금 음미해보게 하였다.

예로부터 값지고 귀중한것을 황금에 비겨왔다.

《시간은 황금보다 귀중하다.》, 《젊어서 고생은 황금을 주고도 살수 없다.》…

이뿐이 아니라 사회적풍요나 시대적번영도 황금에 비겨 《황금시대》, 《황금세월》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장구한 인류력사에 그 황금이 산과 벌, 바다 지어 나무 한그루와도 어울리며 인민의 행복과 웃음, 창조와 번영의 대명사로 불리운적이 있었던가.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황금나무》…

오직 인민의 세상, 인민의 락원인 이 땅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위대하고 고귀한 부름들이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기묘함과 아름다움, 장쾌함과 웅장함을 일컫는 장관들도 허다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어느 시대에도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라는 말은 있어본적 없다.

벌써 수십여년전 제손으로 심어가꾼 과일나무를 황금나무라 노래한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나 한알을 뚝 따서 입에다 넣으니 스리살살 녹는것이 꿀맛같다고 토로한 《황금산타령》 등은 창조와 로동의 열매들이 인민의 행복으로 무르익어가는 이 땅에서 울린 황금산찬가들이다.

어찌 산뿐이겠는가.

나라없던 시절 어느한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절규하던 그 벌마다 황금이 삭이 물결쳐 금실금실 춤을 추며 행복을 거두어들이는 농장벌의 모습이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의 노래가락에 어리여오고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 수사학적물음에는 황금밀밭에 새겨진 공화국기가 대답해준다.

산은 산마다 황금산이요, 벌은 벌마다 황금벌이듯이 《바다만풍가》의 장단에 맞추어 흰 파도 출렁이는 우리의 바다도 황금해로 불리운다.

동서해의 저 넓은 바다를 인민을 위한 거대한 양어장으로, 이것이 바로 조선의 황금해이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복락의 대명사인 이 시대어들은 그대로 행복의 재부, 부강번영하는 락원을 통채로 인민에게 안겨준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인민이 드리는 사회주의찬가이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 만복이 곧 황금으로 상징되는 나라.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거리와 마을을 보아도 눈부시다.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위대한 태양의 광휘와 따뜻한 사랑의 빛발이 있어 이 나라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아니 진정 온 나라가 황금처럼 빛을 뿌리는 인민을 위한 나라로 된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나라 지경밖을 나서면 황금은 자기의 빛을 잃는다.

언제인가 본 자본주의나라 출판물의 글줄이 언뜻 비껴든다.

《돈만 있으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회.》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생존법칙으로 되여있고 정치적식견이나 능력에 앞서 돈이 먼저인 미국정치의 진면모를 폭로한 글이였다.

어찌 미국만이겠는가.

저 남조선사회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돈있는자들은 초호화주택을 여러개씩이나 가지고 흥청망청하고있을 때 민생은 그나마 차례진 판자집과 쪽방마저 불에 타 한지에 나앉고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인정이 얼음장같이 차거운 사회를 저주하며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헤매고있다.

집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940만명이나 되고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라 지난 1월에만도 제 집에서 얼어죽은 사람이 345명이나 된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는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며 한가정의 가장인 로동자가 암흑의 세상을 불태우려는듯 분신자살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니 《이게 사람사는 사회냐.》라는 원망과 분노가 서리치는 남조선은 말그대로 생지옥이다.

돈때문에 자식들에게 천대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로인고아》가 범람하고 돈이 없어 락엽진 청춘들이 《어른아이》로 취급되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황금의 창조자는 누구이고 소유자, 향유자는 과연 누구인가?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미국식 가치관과 생존법칙이 그대로 이식된 남조선에서 인간륜리는 원시시대를 방황하고있다.

황금이 극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황금의 노예, 돈의 노예로 되였기때문이다.

사랑도 륜리도 량심도 정의도 황금으로 매매되기때문이다.

황금과 재부가 억대로 쌓여 자본가들과 특권층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그 황금에 깔려 실업자들과 빈민, 서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황금은 곧 1% 가진자들의 상징이고 특권이며 99% 없는자들에게는 한갖 그림의 떡으로 되고있다. 일년 열두달 쉬지도 못하고 밤늦도록 고혈을 짜내지만 재부와 황금의 태반은 돈많은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니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황금은 곧 서러움과 눈물의 대명사로 되는것이다.

황금도 사회를 떠받치는 인민의 소유가 될 때에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빛이 나게 된다.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하고 인민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황금은 이미 그 빛을 잃었다. 번쩍이는 빛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어두운 빛으로 사람들의 시야에 안겨오고있다.

언제인가 서방의 한 언론은 《자본주의는 자기의 만성적인 불치의 병으로 하여 무덤으로 가는 로상에 있다.》고 개탄한적이 있다.

황금의 두 빛갈—사랑과 증오, 광명과 암흑.

서로 융합될수 없는 이 말속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와 가진자들의 세상인 자본주의사회의 극명한 대조가 있고 인간사랑의 천국과 인간증오의 지옥이라는 하늘땅같은 차이가 있다.

TV의 화면음악을 따라부르며 나풀나풀 춤까지 추는 딸애에게 정겨운 시선을 주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황금나무, 인민의 웃음이 꽃으로 피여나고 인민의 소원이 능금으로 주렁지는 그 황금나무는 네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모두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따뜻한 우리 집,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사회주의 내 조국이란다.)

박 진 흥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한가정, 친혈육이 되여

화목한 가정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펴나기마련이다.

온 사회가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인 공화국에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미덕과 미풍이 꽃펴나고있다.

통보문의 짧은 글줄에도

얼마전 강계시 외룡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길효진은 평양에 살고있는 친척에게 손전화기로 통보문을 써나갔다.

《이젠 저에게 세바퀴차가 더이상 필요없게 되였습니다.》

여기까지 쓰고나니 불시에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하반신이 마비되였던 자기를 위해 오랜 세월 사랑과 정을 기울인 한 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그가 자강도체신관리국 로동자 박혜란과 혈육의 정을 맺은 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렀다.

박혜란은 그의 병치료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중앙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길효진에 대한 치료방도를 모색했고 회복치료에 필요한 운동기재와 보약재를 구해오기도 했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지극한 그 마음에 떠받들려 마침내 그는 제발로 대지를 딛고설수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애써 누르며 계속 써나갔다.

《전 제발로 대지를 활보하고있습니다.》

통보문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시 대지를 걸을수 있게 된 영예군인의 크나큰 기쁨과 함께 자기를 혈육처럼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을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의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탄원자를 위해 바친 진정

두해전 정든 평양을 떠나 세포군 리목축산농장으로 탄원해간 리진주가 뜻밖의 병으로 강원도종합병원에 입원한것은 지난 4월이였다.

사실 그는 입원 첫날부터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난생처음 받는 수술을 이겨낼수 있을가 하는 걱정이 앞섰고 부모와 멀리 떨어져있다는 생각으로 외롭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것이였다.

그의 곁에는 친부모 못지않게 안타까와하며 혈육의 정을 기울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농장의 일군들은 고향의 부모를 대신하여 수술립회를 섰고 복무위과 의료일군들과 간호원들도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바쁜 속에서도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그의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돌봐준 청년작업반원들도 탄원자처녀의 친혈육과 다름없었다.

하기에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문을 나서던 날 그는 심장으로 웨쳤다.

(우리 사회, 우리 집단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있어 제가 기적같이 소생하게 되였습니다. 이 고마운 제도를 받들어 저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본사기자

수필

선택과 권리를 두고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아마 그중에서도 직업에 대한 선택은 가장 중요한 선택들중의 하나일것이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는것보다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인생이 빛난다는것을 나는 얼마전 출근길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청신한 아침공기속에 마음도 즐거이 평양체육관앞을 지나던 나는 출근길에 오른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한 녀인을 보게 되였다.

사람들의 인사에 어쭙은 미소를 띠우며 고개숙여 답례하는 녀인.

그는 바로 내가 열흘전 취재길에서 만났던 중구역도로시설관리소의 도로관리원이였다.

꽃나이처녀시절부터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도로에 자신의 땀과 정성을 기울여온 그였다.

꿈과 포부가 많았을 그 시절에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였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었다.

《누구든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대답은 단순하고 평범했다.

그러나 나는 례사롭게 하는 그의 대답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았다. 자신의 땀과 열정으로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여가는 사람들,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보다 사회주의대가정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더 환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거리와 그속에서 넘쳐나는 사람들의 웃음에서 삶의 긍지와 보람을 찾는 인간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가 느껴졌다.

자기가 하는 일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만이라는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고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던가.

그들을 애국자로, 시대의 전형으로 떠받들고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우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서깊은 명당자리에 호화주택을 일떠세워 무상으로 안겨주시였고 국가적인 행사의 경축대표로, 당중앙위원회 뜨락에서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평범한 도로관리원이 받아안은 긍지와 영광!

이것은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이 만연하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도로청소부는 사회의 최하층직업으로서 멸시와 천대, 조롱의 대상으로, 그들이 쓸어담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치부되고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들의 인사를 받는다는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것만치나 바랄수 없는것이며 그들에게 호화주택이 차례진다는것은 더구나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우대를 받고있다.

저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에 입사한 행복의 주인들을 보라!

처녀시절부터 30여년을 무궤도전차 운전수로 일하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나라의 대의원으로 성장한 녀인의 모습이 보여오고 자기가 맡은 초소를 지켜 수십년세월 중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온 기관사의 모습도 어려온다.

하나같이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애국적선택을 지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그 강직함과 순결함, 고결함으로 장하고 돋보이는 모습들이다.

나의 귀전에 도로관리원의 딸이 어머니에게 했다던 물음이 공명되여 울린다.

《한번도 후회한적이 없나요?》

이 물음에 도로관리원은, 아니 이 땅의 모든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은 자신들의 실생활로 대답하고있다.

조국을 위한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며 그 길에는 오직 기쁨과 보람, 긍지와 영광만이 있다고!

직업의 귀천이 없고 근로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며 가장 보람차고 값높은 삶을 누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리 철 준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세쌍둥이들이 받아안는 사랑과 은정

해방후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거세찬 동음이 울려퍼지던 주체36(1947)년 7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뜻밖의 기쁜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것은 강동군에서 삼태자가 출생하였다는 소식이였다.

그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옛날부터 다태자가 출생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였다고, 이번에 출생한 삼태자가 잘 자라서 나라의 동량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세쌍둥이의 출생에 대해 그토록 기뻐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삼태자를 잘 키우고 산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삼태자와 산모에게 의사와 간호원을 붙여주어 그들이 삼태자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삼태자가 출생한 가정의 살림형편과 주택조건을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삼태자의 양육에 필요한 영양제와 옷과 포단을 공급해주어 아이들을 튼튼히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삼태자가 출생하면 아이들과 산모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따사롭고 자애로운 어버이품이 있어 이 나라의 세쌍둥이들은 생의 고고성을 터뜨린 그 순간부터 이 세상 가장 행복한 복동이들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치며

문맹퇴치운동

일제의 식민지우매화정책의 후과로 해방직후 북조선에는 230여만명의 성인문맹자들이 있었다.

문맹퇴치를 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건국사업에 동원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문맹퇴치사업을 새로운 민주주의적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문화향상은 문맹퇴치로부터!》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문맹퇴치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문맹퇴치사업을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전사회적,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1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1946년 12월부터 1947년 3월말까지 진행된 동기농촌문맹퇴치기간에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을 망라하여 중앙과 도, 시, 군, 면(당시)들에 문맹퇴치지도위원회가, 리들에 문맹퇴치반이 조직되였으며 12살부터 50살까지의 남녀문맹자들이 성인학교에서 매일 2시간이상 우리 글을 배우게 되였다.

결과 전국도처에 설치된 1만 6 000개이상의 성인학교에서 문맹을 퇴치한 사람들은 50만여명이나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성인학교를 4개월반학교로, 고급성인학교를 2년제성인학교와 3년제성인중학교로 하는 새로운 성인교육체계로 개편하시고 여기에서 인민들이 글을 배우도록 하시였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여받은 땅에서 자기 손으로 지은 햇감자와 밀을 알알이 골라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평강군의 리계산농민을 만나주시고 그가 아직 글을 모른다는것을 아시고는 글을 모르고서는 민주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없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석달후 리계산녀성은 문맹을 퇴치하고 제손으로 쓴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으며 문맹퇴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전국에 호소하였다.

이렇듯 문맹퇴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온 나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떨쳐나섬으로써 공화국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문맹자가 없는 나라로 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망동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하반기 합동군사연습일정을 공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조선호전광들은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미국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를 벌려놓고 여기에 괌도에 전개된 미핵전략폭격기 《B-52H》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한편 새로 작성한 《작전계획 2022》도 적용하려 하고있다.

또한 8월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핵반항공훈련을, 10월에는 《한미련합싸드훈련》과 대규모야외기동훈련인 《호국》을, 11월에는 남조선군지휘소연습인 《태극》 등 년말까지 북침전쟁연습들을 줄줄이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반공화국군사적대결소동은 조선반도안전환경에 매우 위험한 후폭풍과 역류를 몰아올수 있는 폭발잠재력을 내포한 무분별한 호전적광태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을지 프리덤 쉴드》에 적용하려고 하는 《작전계획 2022》만 놓고보아도 미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의 중요대상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반공화국핵전쟁각본이다.

그리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강행하고있고 앞으로 벌리려는 모든 전쟁연습들은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워싱톤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며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압도적대응》과 《선제타격》수법을 숙달하기 위한 핵전쟁시연회, 예비전쟁이다.

얼마전에도 역적패당은 그 무슨 《2023년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2023년전반기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관회의》라는것을 련이어 벌려놓고 그 누구의 《위협》에 따른 그 무슨 《대응방안》을 론의하였다. 그 모의판이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반공화국침략전쟁기도를 현실화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더우기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크고작은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그 목적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자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듯이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그칠새없이 벌리는 반공화국핵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에로 몰아가고 있다.

역적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소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과열시키는 근원이 어디에 있고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핵강대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 뼈속까지 차있는 반공화국대결야망으로부터 반공화국핵전쟁소동에 광분하고있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김 상 현

예속과 굴종의 매국《협정》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이 미국과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조작한지 57년이 지났다.

알려진바와 같이 1966년 7월 9일 미국과 박정희역도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판권》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행정협정》(《SOFA》)을 조작하고 그 다음해인 1967년 2월 정식 발효시켰다.

이 《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강점자들에게 형사재판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수속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적지위를 부여해줄뿐 아니라 침략군의 범죄까지 무마해주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정》이며 현대판노예문서이다.

이 굴욕적인 《행정협정》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의정부집단륜간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매향리폭탄투하사건, 두 녀중학생학살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이 력대적으로 감행한 야수적인 만행들은 오늘도 만사람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인과 폭행, 략탈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도처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만들어놓고 유독성물질을 마구 내버려 강토를 황폐화시켰을뿐 아니라 핵무기와 살아있는 탄저균, 지카비루스를 비롯한 생화학무기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각종 생화학실험과 훈련을 벌려왔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따라 언제한번 문제시된적이 없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하면서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폐기와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침략자, 강점자인 미국을 《혈맹》으로, 《우방》으로 치켜올리며 친미사대매국행위를 거리낌없이 일삼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지배가 지속되고 윤석열역도와 같은 사대매국노들이 그대로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비롯하여 미국과 체결한 온갖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의 폐기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반미,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 영 수

미국의 특등전쟁사환군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은 《싸드》기지정상화를 계기로 10월 남조선강점 미군과 《싸드》의 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련합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8월에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기간에는 사상초유로 민간핵반항공훈련을 진행할것이라고 공개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추종하여 조선반도에 핵참화를 몰아오고 남조선을 세계적인 핵전초기지로 더욱 로골적인 방송장악기도》, 《구시대적망상》, 《언론자유말살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언론장악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통제하고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정의와 진리, 민심을 등진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놓는 망동으로서 남조선민심의 반윤석열, 반《정부》투쟁기운을 더더욱 높일뿐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러한 핵전쟁피물을 끌어들인것은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여 전 조선을 병탄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제압하여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지휘봉에 따른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과 주변나라들은 《〈싸드〉배비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싸드〉는 쌍방관계의 기초를 흔들게 될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싸드》의 배비와 운영을 견결히 반대해나서고 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핵위협》을 구실로 사상 처음으로 벌리려는 민간핵반항공훈련 역시 미국의 반공화국핵전쟁기도에 편승하여 강행하려는 용납 못할 핵전쟁도발책동이다.

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공범자로서의 저들의 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적반하장격으로 《북핵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철면피의 극치로서 그들이 얼마나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되여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과 주변나라들은 《〈싸드〉배비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싸드〉는 쌍방관계의 기초를 흔들게 될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싸드》의 배비와 운영을 견결히 반대해나서고 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핵위협》을 구실로 사상 처음으로 벌리려는 민간핵반항공훈련 역시 미국의 반공화국핵전쟁기도에 편승하여 강행하려는 용납 못할 핵전쟁도발책동이다.

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핵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하고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싸드》의 배비로 남조선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수행을 위한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 주변나라들은 미국의 핵공격목표가 되여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이 더욱 증대되게 되였다.

특히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핵열점지역, 세계적인 핵전쟁의 발원지로 되게 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역적패당이야말로 미국의 특등전쟁사환군이고 극악한 호전광이며 천하역적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장 형 범

언론장악을 노린 검거선풍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언론장악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역적패당은 언론계의 주요요직들에 앉아있는 이전 《정권》시기의 인물들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들에 리명박역도집권시기 언론탄압의 주역을 놀았던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을 하였던자를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을 박아넣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또한 《MBC》, 《K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저들의 통치행위를 폭로비난하였다고 하여 《편파방송》, 《가짜뉴스의 장본인》으로 몰아대고 박해를 가하고 있으며 《방송법》을 뜯어고쳐 막대한 재정적부담까지 들씌우려 하고있다.

언론에 대한 역도의 검은 마수는 인터네트들에도 미치고있다. 역적패당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네트검색싸이트들이 온통 저들에 대한 비난기사로 채워졌다고 하면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인터네트언론사들의 보도활동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터네트검색싸이트들을 감독통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전위원회》, 《가짜뉴스퇴치전문단》을 내오려 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언론의 공정한 보도활동을 가로막고 언론을 저들의 반역행위, 반인민적악정과 독재통치를 미화하는 어용나팔수,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비렬하고 악랄한 언론장악, 언론탄압책동이다.

남조선언론들의 활동은 역적패당이 떠드는것처럼 《편파보도》나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역적패당의 외세의존적이고 반인민적인 통치가 빚어낸 남조선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것이고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원한과 분노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한 언론활동이다.

사실 지금 남조선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친미친일사대매국책동과 검찰파쇼통치, 친재벌, 특권족속위주의 정치와 부정부패,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파국의 진펄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경제는 최악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으며 정치권은 서로 물고뜯는 시정배들의 개싸움판으로 되였다.

또한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물론 생존권을 요구하는 막바지인생들까지 《폭도》로 매도되여 가혹한 탄압을 받고있다. 특히 역적패당이 매일같이 광란적으로 벌리는 반공화국전쟁소동으로 안보불안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는 극도에 이르고 그것은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으로 폭발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러한 현실, 이러한 민심을 그대로 전하고 남조선을 암흑사회로 만든 역적패당을 민심을 대변하여 단죄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이것을 《편파보도》,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과 파국에로 몰아가는 《외곡보도》로 매도하면서 언론탄압, 언론장악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역적패당의 언론장악책동에 대해 《대국민선전포고》,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가련한 몸부림

윤석열역도가 쩍하면 해외행각놀음을 벌려놓고있다.

역도는 지난해 3차에 걸쳐 6개 나라를 돌아친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도 5차에 걸쳐 7개 나라를 나돌았다.

윤석열역도가 뻔질나게 벌리는 해외행각놀음은 《외교치적》으로 대내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도피행각, 사대와 굴종으로 대외적고립과 위기를 더욱 격화시킨 죄악을 합리화해보려는 광대극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는 무지와 무능,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최악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불러온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분노가 극도에 이르고있다. 《윤석열 퇴진!》,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민심이다.

윤석열역도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를 수습할 아무런 방도도 없고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그 어떤 자기의 집권후 남조선이 《세계중추국가》로 발돋움했다느니, 경제외교와 판매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있다느니 하고 자화자찬하는 속에 해외행각에 련이어 나서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도 역도가 한짓이란 미일상전을 비롯한 외세에 추종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킨것뿐이다.

남조선내부에서 윤석열역도가 대내현안이 산적해있지만 해외순방에만 치중하고있다, 대내통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것을 외교로 만회하려 하고있다, 외교로는 지지률을 끌어올릴수 없으며 《국정운영》의 성패는 민생과 경제성과에 의해 좌우된다, 윤석열의 외교란 《아마츄어외교》, 《굴욕외교》, 《망신외교》라고 혹평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윤석열역도가 갖은 오그랑수를 다 써가며 제 몸값을 올리려고 해도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 각계의 반윤석열, 반《정부》투쟁기운은 눅잦힐수 없다.

본사기자 김 광 혁

군사파쇼독재를 릉가하는 야만적폭거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로동계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이를 가로막아보려는 역적패당의 책동도 극도에 달하고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계의 《정권》퇴진투쟁에 질겁한 역적패당이 최근 그 무슨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대처》를 떠들며 155개 경찰부대 인원 9 300여명을 강제진압에 내모는 등 로동계 말살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역적패당의 발악적책동으로 적지 않은 시위참가자들이 부상당하고 강제련행되는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과거 군사파쇼도당을 릉가하는 야만적폭거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집권초기부터 강행추진하고있는 《기업위주성장정책》과 대기업《법인세인하》, 《로동시간유연화》와 같은 반로동정책으로 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의 삶이 막바지로 굴러떨어지고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기에 근로대중의 삶보다 저들의 집권유지와 극소수에 달하는 특권층의 치부만을 추구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로동계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이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깡패, 검찰독재 윤석열타도!》, 《우리가 주인이다, 초불이 이긴다》 등의 구호밑에 매일과 같이 윤석열퇴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민주로총》은 7월 3일부터 2주일동안 윤석열역도의 반로동정책에 항거하여 40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한국로총》과의 련대투쟁도 계획하는 등 대중적인 윤석열퇴진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로서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무슨 《법과 원칙》을 떠들며 폭압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로동계의 투쟁을 강제진압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말끝마다 떠들어대는 이른바 《법치주의》라는것이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을 가리우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망동은 독재의 칼을 마구 휘두르며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던 이전 군사파쇼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범죄적인 폭력행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희세의 파쇼독재광, 민심에 등을 돌린 천하역적무리들이다.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박 철 남

ㄱ-1611ㄷ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